

“ 지붕 위에 난 풀 ”

■ 이종윤 원로목사

높은 자리나 탐하고 남의 눈에 띄어 나타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서 보기에 어설피다.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고 알맞아야 어울린다. 분수를 모르고 남을 제치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가리지 않고 쏟아내면서 함부로 덤비는 모습은 지붕 위에 난 풀처럼 보기에 괴롭고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풀이라고 해서 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축을 위한 목초나 사람을 위한 식용도 있고 농사를 위한 퇴비도 있다. 그러나 지붕 위의 풀은 퇴비나 사료, 심지어 땀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고 관상에 해롭고 건물 유지에도 유해할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쓸모없는 이가 되거나 해로운 존재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자리가 있다. 머리카락은 머리 위에 붙어 있을 때 제값이 있다. 그것이 맹장 속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제자리를 이탈하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나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 따라 제자리를 찾아 수고의 땀을 각자 흘려야 한다.

풍부한 지식과 지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정직과 자신의 그릇을 아는 사람이 그림다. 조화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 주어졌지만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상실한 때부터 역사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얇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하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의 짐도 져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 한 토막이 생각난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 회의하여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했다.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하면서 거절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 없다 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겠다 했다. 제자리를 벗어난 악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 양도 얼마되지 못하며 제자리도 찾지 못한 지붕 위의 풀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기름을 짜내는 모퉁이의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284호] 2011년 7월 23일 발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교회에서의 네 번의 예배도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양보와 기도로 도와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저히 감소되고는 있지만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직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이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전처럼 실시간 예배 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처럼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접속방법은 이전처럼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규(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상,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시, 수비식, 일로롱, 비누뽀뽀, 보다소프, 린름, 수린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임(필리우),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상태 ” (The Intermediate State Between Death & the Resurrection)

■ 눅 16:19-31

나사로와 한 부자에 관한 본문 말씀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 즉 중간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 세상 삶과 사후를 대조하며 그 상태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과 인간의 죄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자의 변명으로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1. 이 세상에서 부자의 사치스럽고 낭비된 삶과 거지의 비참한 삶의 상태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갔고, 거지이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나사로의 고난과 거지의 영화로운 삶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 밖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비참한 삶을 살았고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세사적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영광과 안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대조적인 삶이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모두 죽었고 거지는 천국에 부자는 불꽃이 타오르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 변경할 수 없는 상태

죽은 다음 낙원과 음부에 간 상태, 이미 작정된 상태는 더 이상 변경될 수 없습니다. 낙원과 음부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공간적으로 교통할 수도 없고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18). 사망과 권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사자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계 1:20)

3. 한 부자의 변명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지속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는 세상에 생존해 있는 다섯 형제들이 죽은 후에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음부의 세계에 오지 않도록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 합니다.(눅 16:27-28) 그런데 부자가 형제들의 구원을 요청함에도 그것이 변명으로만 들림은 그가 형제들의 구원을 요구하는 동기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과정이나 결과보다도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이미 죽은 거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 역시도 자신이 누구에게나 경교나 주의나 가르침이 있었다면 지옥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선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경교나 주의를 주시지 않았다고 핑계와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경교가 있기 때문에 부자는 그 어떤 변명과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회개케 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Sola Scriptura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 우리가 천국 가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했습니다.

맺는 말

우리는 구령이나 표적 같은 데서 들려오는 이단 사이비의 괴상한 음성에 호기심으로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서 들려오는 그럴싸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충분하며, 심판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는 결코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헌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박정선 장로
IV 오후 4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마 28:19-2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9(시1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4(10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1:18-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십자가의 도!...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521(25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수요 I 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05:1-2 인 도 자
 찬 송 351(389)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수 3:1-17 인 도 자
 설 교 ... “요단에 들어서라” ... 인터넷 영상
 찬 송 325(359)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1-3, 3-8-9, 11-1, 12-7, 13-10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701명	261명	1,962명	1,549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4/1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19일	헌 금	28,714,010	
	성 레 비		500,000
	교회학교운영비		572,500
	선 교 비		39,834,000
	구 제 비		300,000
	비전2020		5,680,000
	출 판 비		33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2,600,000
	복리후생비		89,000
	통 신 비		125,400
	수도광열비		359,470
	차량유지비		129,000
	소모품비		97,100
	잡 비		7,059,800
	환경유지비		371,800
	수선유지비		147,000
	식당운영비		469,400
	합 계	28,714,010	59,164,47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